

전남 해상케이블카 전성시대

전남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해상케이블카가 큰 인기를 끌면서 사군 곳곳에 설치되고 있다. 여수에 설치된 해상케이블카가 히트를 치면서 목포, 해남 등 전남 서부권 지자체들도 앞다퉈 해상케이블카 설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복 투자에 의한 지자체 간 경쟁 격화, 특징 없는 관광시설 양산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5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목포시의 상징 유달산과 고하도를 연결하는 국내 최초의 목포해상케이블카가 사업추진 32년, 착공 2년만에 완공돼 7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면서 관광 목적으로 설치된 케이블카(케도 포함)는 여수(돌산-자산공원), 해남(두륜산), 순천(순천만), 해남(땅끝)에 이어 5개로 늘어난다. 목포해상케이블카는 유달산과 다도해, 목포도심을 조망하면서 150여m의 상공에서 바다를 건너는 스틸을 만끽할 수 있다. 목포 북항스테이션을 출발해 유달산 정상인 일등배위(해

유달산~고하도 연결 목포해상케이블카 내일부터 본격 운영
 여수·해남·순천 등 앞다퉈 설치 ... 중복투자 등 우려 목소리

발 228m) 옆을 통과, 유달산 스테이션에 정차한 후 바다를 건너 고하도 스테이션까지 이어지는 3.23km 코스다. 전체 길이가 국내 케이블카 중 가장 긴 데다 해상구간(0.82km) 역시 최장이다. 해상 지주를 없애기 위해 설치한 육상지주의 높이가 155m, 지주 간격도 961m로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상케이블카는 여수에 이어 전남에서 두 번째다. 여수 돌산과 자산공원을 잇는 여수해상케이블카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완공에 들어갔으며, 연장은 1.5km다. 박람회장과 오동도 중심으로 다도해의 탁 트인 전망과 여수의 밤바다 풍경을 볼 수 있어 여수 관광자원의 핵심으로 연평균 200만명이 찾을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 목포

해상케이블카는 기암괴석이 절경을 뽐내는 유달산과 고하도 등 웅기종기 모여있는 다도해, 바다에 웅장하게 우뚝 선 목포대교, 목포 도심에 한눈에 입체적이고 생동감있게 조망할 수 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명량대첩 현장인 울돌목도 조만간 해상케이블카에서 조망할 수 있다. 명량대첩을 가로질러 해남 우수영 관광지와 진도타워를 잇는 길이 1.15km, 사업비 300억원이 소요되는 울돌목 해상케이블카는 2019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8인승 26기, 12인승 4기 등 30기가 운행한다. 해남 우수영과 진도 녹진 사이의 협수로인 울돌목은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 13척의 배로 133척의 왜선을 격파한 명량대

첩 전승지다. 이곳은 평균 유속이 10노트(시속 18km)에 이를 정도로 거센 물살이 흐르고 있다. 해남군은 지난 3일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건축을 허가했다.

울돌목을 경계로 해남 쪽에는 명량대첩을 이끈 이순신 장군의 지휘 본영인 전라우수영의 유적지가 자리 잡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여수에 이어, 목포에 해상케이블카가 들어서 6000만명 관광객 시대를 여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울돌목도 케이블카 건립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구례·담양군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구례군은 1990년대부터 지리산에 3.1km 길이의 케이블카 사업을 유치하려고 경남산청·함양, 전북 남원 등지와 각축전을 벌여왔다. 담양군도 최근 담양호를 사이로 추월산과 금성산을 잇는 4.2km 길이의 케이블카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검찰, 광주시청 압수수색 '민간공원 특례사업' 의혹

중앙공원 2지구 사업자
 최종 선정 과정 특혜·비리
 위법 확인 뎀 재공모
 사업 자체 무산 우려도

검찰이 광주 민간공원 특례(2단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변경과 관련해 광주시청을 압수수색했다. 민선 7기 출범 이후 광주시에 대한 첫 압수수색이다.

〈관련기사 3면〉
 5일 광주지검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전 광주시청에 수사관을 보내 6시간 넘게 압수수색을 했다.

검찰은 특례사업을 총괄했던 정중재 광주시행정부시장실(부속실 포함)과 담당 부서가 속한 환경생태국, 시감사위원회, 시감사위원회, 시의회(의정실(보좌관실 포함), 전산부서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일부 광주시 관계자의 휴대전화와 차량 등도 압수수색했으며, 정부세종청사에도 수사관을 보내 광주시 관련 공무원들의 통합 메일을 확보했다.

검찰은 상사 5개 분량의 자료를 확보했으며 관련 공무원들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도 진행했다.

검찰은 앞서 광주시로부터 감사 관련 서류를 임의 제출 받았으나, 미흡한 부분

이 있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중앙공원 2지구 내용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한 광주시 공무원과 일부 사업자 등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광주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의혹이 제기된 이후 광주시의 특정감사자 제대로 이뤄졌는지, 감사과정에서 특정인의 개인 여부는 없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에 앞서 행사부의 지휘 아래 수사과에서 담당하던 이번 사건을 중대범죄를 전담하는 특별수사부로 재배당하는 등 강력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특수부에서 맡는 게 맞다는 판단에 따라 재배당한 것”이라면서 “이미 압수수색을 받은 단계의 (범죄)혐의는 소명됐다. 다만 현재 수사가 진행중인 만큼 수사 확대 여부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답변할 단계가 아니며 최대한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지난 4월 민간공원 특례 2단계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혜·비리 의혹이 있다며 당시 광주시 담당 국장을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도시철도2호선 17년 만에 첫 삽



5일 오후 광주시청 야외음악당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기공식이 열리고 있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은 순환선으로 시청~월드컵경기장~백운광장~광주역~전남대~첨단지구를 지나 다시 시청으로 이어지는 총연장 41.8km다. 2024년까지 3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오늘 조국 청문회... 여야 뜨거운 격돌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가 6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실시된다. 이번 청문회 결과는 향후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최대 현안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3·4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5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6일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 또 증인·참고인 채택 안건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청한 증인은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 김모 전 환경외교 유학실장, 신모 관악회 이사장 등 4명이다.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증인은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정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박사, 최모 웰스씨엔

티대표이사, 임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운영역, 김모 전 WFM 사내이사, 김모 용동학원 이사, 안모 (주)강강애드 이사 등 7명이다. 여야가 조 후보자 가족과 관련된 증인은 제외하기로 하면서 조 후보자의 모친과 부인 정경심씨, 조 후보자의 딸, 조 후보자의 동생과 동생의 전처 등은 모두 증인에서 빠졌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기업고객님을 위한 아모레퍼시픽 추석 선물세트

AMORE PACIFIC CORPORATION



종합 1호
9,900원



종합 3호
16,900원



종합 4호
21,900원



프리미엄 2단 선물세트 1호
39,900원



프레시팝 베이직 선물세트
32,900원



종합 5호
25,900원



종합 6호
32,900원



종합 8호
40,900원



AP 아로마퍼퓸 세트
29,900원



AP 로즈에센스 세트
28,900원

기업고객님의 구매수량에 따라 권장 소비자가에서 최대 50% 추가 할인이 가능합니다

100개 이상 대량 구매고객은 아래의 번호로 문의해주세요.

*매장별 취급 여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구매 전 매장 담당에게 문의해주세요. 아모레퍼시픽 데일리뷰티 광주영업팀 : 062-231-1868(09:00~18:00) *본 카달로그의 이미지는 연출컷으로 실제 이미지와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